‘최저가 낙찰제’ 날림공사 부른다

덤핑입찰 등 무리한 경쟁에 심의제 객관성·공정성 미흡

건설산업硏 “공사유형별로 저가심의방식 다양화 해야”

현재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와 저가심의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저가 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덤핑입찰 등 무리한 저가 수주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가 오히려 심의의 객관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공사특성에 따라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저가심의에 제출하는 사유서가 지나치게 방대해 허위 증빙서류를 검증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획일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공사유형별로 저가심의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이 최근 시공능력평가순위 1~200위 기업 공사주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5%가 ‘최저가 낙찰제·저가심의제도가 불합리하다’라고 응답,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합리적’이라는 대답은 전무했다.

응답자들은 불합리한 이유로 ▲절감사유서 인정범위 불합리(24.2%) ▲저가 심의의 객관성·공공성 부족(22.7%) ▲저가심의시 심의서류 진위확인 미흡(21.2%)을 꼽았다.

대안으로는 저가심의방식의 경우 저가하한선 미만 시 자동탈락시키는 ‘제한적 최적가 낙찰체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32.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이원화해 단순공사(일정금액 이하)는 ‘순수 최저가 낙찰방식’을 택하되, 복잡공사(일정금액 이상)에서는 심의단순화 또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강화 및 제한적 최저가제를 운용하자는 응답도 21.7%에 달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설문·연구결과를 토대로 단순 기술이 적용되거나 지나친 저가투찰로 시공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의 경우 최저제한가격을 활용한 ‘제한적 최저가’ 제도를 도입하고,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는 1차에서 기술 적격자를 가려내고 2차 심의에서 가격 절감 부문을 심사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최저제한가격을 둔 ‘제한적 최저가’ 제도도 입찰이 가격 제한선에 집중되지 않도록 발주자 설계금액을 비공개로 하고 최저제한가격 이하를 제시한 입찰자가 새 공법·기술을 통해 원가를 낮췄을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1단계 심사에서 부적정 공정 수를 기준으로 입찰자를 걸러내는 현행 방식을 바꿔 1단계 심사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무리한 저가경쟁으로 낙찰가가 낮아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1단계(객관적 심사)와 2단계(주관적 심사)로 저가심사제를 유지해 심사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300억원 이상 공사는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낙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이 저가심사를 하도록 한 공공공사도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 상품사고 선거 참여하세요 농협 광주지역본부 직원들이 지난 12일 광주시 서구 화정4거리에서 농협 금융상품 홍보와 함께 6·2지방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양동시장에서도 포인트 카드 사용

IT 인프라 구축… 대형마트 수준 서비스

광주 양동시장에 대형마트 수준에 맞먹는 정보통신(IT) 인프라가 구축된다.

중소기업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올해 15억원을 투입해 광주 양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서귀포 매일시장에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3개 시장은 상점 위치와 상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포인트카드를 발급하며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행사안내·할인쿠폰을 발송하는 등 대형마트 수준의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광주 양동시장은 주요 출입구에 안내 터치스크린 설치, 부산 자갈치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연계한 주차공간 안내, 서귀포 매일시장은 무선센서를 이용한 화재·가스감지를 비롯한 안전관리 서비스 등 시장별로 특화된 서비스도 마련된다.

사업 추진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맡고 도시계획, 디자인 전문가 등이 자문에 참가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IT 활용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여름 안 더우면 40억 쏩니다

삼성전자 에어컨 구매고객에 20만원 환불

삼성전자가 올 여름 무더위가 없으면 에어컨 구매고객에게 20만원씩 돌려주는 마케팅을 전개한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25일까지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하우젠 에어컨 제로를 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40억 날씨 마케팅’을 진행키로 했다.

오는 7월10일부터 8월9일까지 31일간 최고 기온이 30도 미만인 날이 24일을 넘으면 에어컨 구매고객에게 20만원(세금 본인부담)씩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40억은 행사 기간에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은 에어컨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예상 환급금이다. 최고기온은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 기상관측소 측정기온이 기준이 되며, 행사 기간에 해당 에어컨을 산 고객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0도가 되지 않은 날이 21일이었다”며 “예약판매기인 연초의 이상기온으로 여름철에도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에어컨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이번 마케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오늘부터 감면

첨단자이 미분양 17~23% 인하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되고,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를 내리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월11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를 10% 내리면 양도세의 60%, 10~20%를 인하하면 80%, 20% 넘게 내리면 10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자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경우 최근 층별로 분양가가 17~23% 내렸다. 총 594가구인 첨단자이 단지는 110~193㎡형으로, 현재 39% 정도가 미분양 물량이다.

부산 기장군 정관지구 한진해모로는 잔여 물량의 분양가를 최고 19%까지 내려 분양하고 있다. 한진해모로 단지는 총 763가구가 131~175㎡형으로, 현재 15% 정도 남아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 조세부담 OECD 중 최저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OECD가 이날 발표한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미혼자의 평균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은 19.7%로 회원국 중 멕시코(15.3%), 뉴질랜드(18.4%)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이 36.4%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미혼 직장인의 조세부담률이 절반가량 낮은 셈이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1분기 영업익 사상 첫 1000억 돌파

아시아나항공이 올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나는 13일 1분기 매출이 1조1758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153억과 95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분기당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2008년 3분기의 1조1698억원을 웃돌았고, 영업이익은 1999년 3분기의 867억을 뛰어넘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9229억원에서 27.4% 증가했고, 영업손익은 1201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매출(1조893억원)은 7.9% 늘었고, 영업이익은 161.4%나 뛰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전영복씨 선임

14개월간 공석이던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전영복(69) 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선임됐다.

광주상의는 13일 오후 제4차 임시의원 총회를 열어 전체의원 67명 중 출석의원 53명 만장일치로 전씨를 제20대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 임기는 2012년 3월까지다.

전 부회장은 광주서중·일고와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시 예산담당관·공보관·경제통상국장, 한국광산업진흥회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694.58 (+31.55)
▲ 코스닥지수	522.54 (+10.41)
▲ 금리 (국고채 3년)	3.79% (+0.02)
▼ 원·달러 환율	1,128.00원 (-15.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